

강한별 개인전 《색을 먹는 몸》



색을 먹는 몸 2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65.1x45.5cm

전시개요

전 시 명 : 강한별 개인전 《색을 먹는 몸》

전시기간 : 2020년 2월 4일(화) – 2월 25일(화)

전시장소 :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종로구 팔판길 22-3)

문 의 : 02-720-1524~6

출 품 작 : 회화 10점, 설치 1점

담 당

박미란 miran@hakgoja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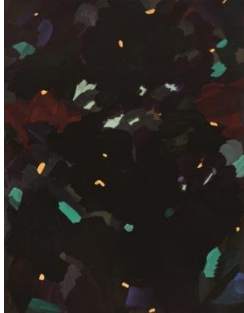
1. 전시 개요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는 청년 작가의 개인전을 지원하는 다회성 프로젝트다. 동시대 청년 작가의 화면을 폭넓게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 학교재 전시와 차별화한 공간이다. 작가가 운영에 적극 참여해 자율성이 높다. 팔판동 소재 한옥 공간에서 진행된다.

2020년 2월 4일(화)부터 2월 25일(화)까지 **강한별**(b. 1983, 수원) 개인전 《색을 먹는 몸》을 연다. 강한별은 주위의 풍경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다. 형상을 지우고 색채에 집중한다. 관념을 걷어내고 새로운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강한별의 화면은 놓인 자리의 환경을 투영한다. 색을 도구 삼아 장면에 대한 감정을 진솔하게 옮긴다. 전시에서는 회화 및 설치 11점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2. 대표 작품 및 전시 전경

■ 대표 작품



색을 먹는 몸 4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116.8x91cm



색을 먹는 몸 2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65.1x45.5cm



나이스바디
2014/20
캔버스에 아크릴릭, 흑연, 통나무
가변크기



색을 먹는 몸 1
2020
캔버스에 아크릴릭
100x100cm

■ 전시 전경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3. 작가 소개

강한별은 1983년 수원에서 태어났다. 2011년 런던예술대학교 첼시예술대학 순수미술전공 학사 졸업 후 2013년에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갤러리도스(서울), EK아트갤러리(서울) 아트스페이스 노(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CICA 미술관(김포), 동탄아트스페이스(화성), 더 크립트 갤러리(런던), 주영국 한국문화원(런던), 국경 없는 예술 공간(파리) 등 국내외 기관의 단체전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2012년 국경 없는 예술 공간(파리)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용인에서 작업 중이다.

4. 전시 서문

색을 먹는 몸

박미란 | 학교재 큐레이터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 힘바 부족이 산다. 이들은 우리와 다른 색채의 세상을 본다. 색을 구분하는 언어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다. '바파'는 흰색과 밝은 노란색을 가리키는 단어다. 일출의 색이다. '주주'는 어두운 명도의 색을 크게 포괄한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자연의 색채다. 파란색과 초록색을 한 데 묶어 '부루'라고 부른다. 실제로 이들은 두 색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담부'는 미묘하게 다른 초록색 범주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초록의 명도 차를 한눈에 짚어내는 이유다.¹ 타고난 시각 능력은 환경에 따라 발달하거나 퇴화한다. 사고방식에 따라 인지의 범위가 달라진다. 시야 너머로 이름 없는 빛들이 지나쳐 간다. 굳은 시각 탓에 많은 장면을 놓치고 있다. 강한별은 감각을 곤두세운다. 대상의 이름을 잊고 낮설게 본다.

그림을 그리는 일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다. 생경한 발음으로 심상을 전하는 말하기다. 강한별은 세상을 색으로 옮긴다. 문법은 단순하다. 눈으로 삼키고, 손으로 뱉어낸다. 화면이 색을 먹고 자란다. <색을 먹는 몸 2>(2020)는 작업실 창밖에 핀 금잔화를 소재로 한 회화다. 특유의 향기가 뱀을 내몬다고 하여 뱀꽃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혜의 상징인 뱀을 쫓는 금잔화처럼, 아는 것을 다 잊고 그리려 했다. 아이의 마음으로 관념을 떨쳐내고 풍경을 본다. 붓이 모양을 지우고 색채를 개어낸다. 뱀의 형상이 어렵듯하다. 직관적인 붓질이 사유를 뒤덮는다. <색을 먹는 몸 4>(2020)의 밤 풍경 속, 금잔화가 꽃잎을 오므리고 뱀이 자취를 감춘다. 감성이 살아나는 시간이다. 어둠 속 꽃술이 별처럼 빛난다.

강한별은 화자보다는 청자다. 눈을 감고, 눈꺼풀을 투과하는 빛을 본다. 풍경이 피부에 스민다. 화면은 주장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단지 놓인 자리의 색채에 물든다. 시선을 오래 머금은 장면일수록 추상에 가까워진다. <나이스바디>(2014/20)는 세 개의 캔버스와 두 개의 통나무로 이룬 설치다. 자연이 빛은 통나무가 기하학을 닮았다. 프랑스 니스에 머문 경험을 소재로 한 작업이다. 이국에 깃든 몸을 떠올리며 중의적인 작품명을 지었다. 도형의 경계마다 색이 침투한다. 들풀처럼 자란 색을 연필 선이 보듬는다. 수용은 때로 밀어내기보다 어렵다. 생각의 근육을 이완해 융통성을 마련해야 한다. 부드러운 관절을 지녀야 유연하게 품을 수 있다.

¹ Horizon: Do You See What I See? (2011), BBC two, Available at: <https://www.bbc.co.uk/programmes/b013c8tb>

회화의 언어에는 문장이 없다. 약속된 어휘의 범주도 없다. 자유로운 형용과 수식이 화면을 메운다. 그리는 행위는 마치 감각을 통역하는 일 같다. 관념의 범위 바깥을 탐색하는 과정이다. 조금 더 많이 느끼고 넓게 담아야 참신해진다. 붓의 진동이 심상을 전한다. 목적 없는 그리기를 이어 가면 그리기 자체가 목적이 된다. 강한별의 화면이 자연을 먹는다.

5. 작가 약력

강한별

- 1983 수원 출생
- 2011 런던예술대학교 첼시예술대학 순수미술전공 학사 졸업
- 2013 런던예술대학교 첼시예술대학 순수미술전공 석사 졸업
- 서울에서 거주하며 용인에서 작업

개인전

- 2020 **강한별: 색을 먹는 몸, 학교재 디자인 | 프로젝트 스페이스, 서울**
- 2019 어페어, 갤러리도스, 서울
- 2017 순수의 덧가, EK아트갤러리, 서울
- 2015 트로피컬 다크니스, 아트스페이스 노, 서울
- 2014 나이스바디, 한국예술연구소KARI, 성남

단체전

- 2017 동시대 풍경, CICA 미술관, 김포
- 2016 제2회 2016 신진작가 공모기획전, 이정아갤러리, 서울
- 2015 드로잉을 통한 재구성, 갤러리엘르, 서울
- 화성시문화재단 신진작가 공모전 – 풍경을 걷다,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 2014 백 만 개의 층을 가진 정원, 남이섬 일대, 춘천
- 퓨처 맵, 스페이스, 런던
- 파운드, 캡처드, 퍼수드, 신한갤러리 역삼, 서울
- 2013 슈퍼임포즈, 더 크립트 갤러리, 런던
- 동시대 작가 데뷔전, 데뷔 컨템포러리 갤러리, 런던

2012 제5회 재영한인작가전 - 지금X여기, 주영국 한국문화원, 런던
트램펄린, 국경 없는 예술 공간, 파리

레지던시

2012 국경 없는 예술 공간, 파리